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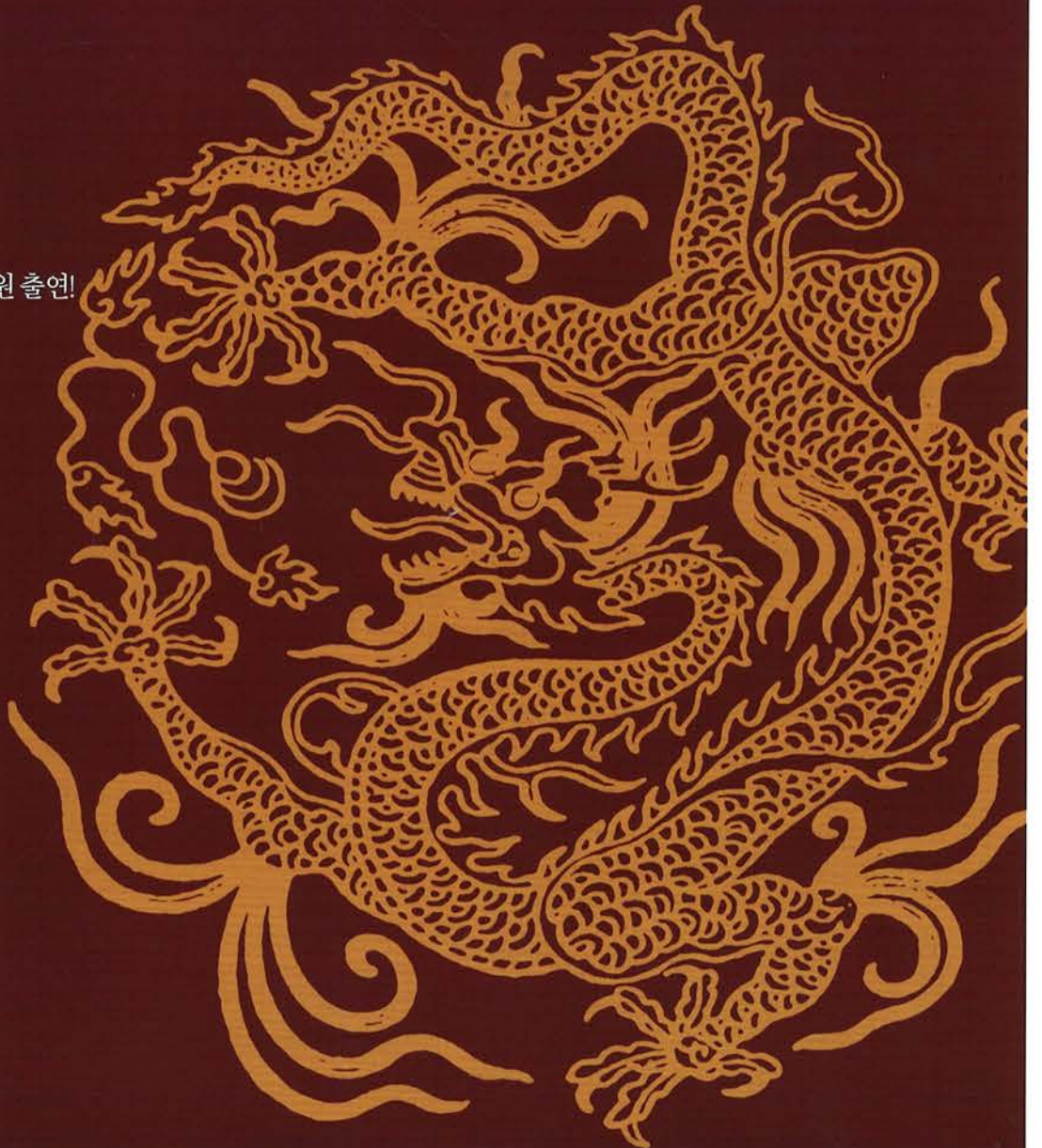
명씨대중회의 큰 별, 명위진 회장이 이끌어오던 대중회! 명광길 신임 회장 체제로!



2012년 5월 5일, 제34차 정기총회에서 제19대 대중회장으로 선출된 명위진 회장이 이끌어 오며 큰 발전을 거듭해 오던 명씨대중회가 2014년 10월 31일, 제36차 정기총회에서 제20대 대중회장으로 새로 선출된 명광길 회장체제로 바뀌어 또 다시 새로운 용비를 시작한다.

명위진 회장 재임 중 대표업적

- 대하파안기념관 신축!
- 명씨신문, 명씨대중보 창간!
- 대하장학회 장학기금 20억원 추가출연, 총 40여억원 출연!
- 명씨대중회 회칙 및 대하장학회 정관 정비!
- 대하장학회 사업영역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장애인, 극빈자지원 복지사업) 확대!
- 명씨대중회 타임캡슐 매설!
- 대 중국과의 교류확대 및 우호증진!
- 대하파안기념관 명씨역사 전시관 개관!
- 대중회와 지방총친회 활성화 및 교류확대!





명위진 회장 인사말씀

19대 명씨대종회 회장 명 위 진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풍요로움이 가득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경향각지로 부터 모이신 종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정의를 바로 세워 어려운 백성을 살리겠다며 분연히 일어나 대하국을 창건하셨던 명옥진 시조 황제님의 유지를 받들어 우리 명씨 황손들은 지금도 열심히 살아 가고 있습니다.

지난 총회에서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대종회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종친 여러분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끝까지 보답하지 못하고 오늘을 끝으로 대종회장직을 마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게 되어 송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저의 재임기간을 회고해 보건대, 명씨 가족 간에 두터운 정을 맺어주고자 '명씨 대종보'를 창간했던 일, 땀땀한 사무실 하나 없어 대종회 간판을 들고 유랑생활을 해야 했던 종친들께 '대하파안기념관'을 안겨드린 일, 대대손손 명씨 후손을 책임질 인재양성을 기대하면서 '대하장학기금을 크게 확충'해 놓은 일들이 있어 다소나마 위안이 됩니다.

저는 오늘 대종회장직에서 물러나면서 우리 종친 여러분들께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종친회를 함께 꾸려 나가면서는 '내탓이오'라는 생각으로 종친 서로가 서로를 감싸 안고, 종친 일에는 모두가 술선수범으로 봉사하며 서로 서로 화합하고 뭉쳐달라는 것입니다.

저는 비록 오늘 이 자리를 떠나지만, 대종회 회장으로서 재임하던 중 미흡했던 후손으로서의 역할은 앞으로도 힘닿는 데까지 열심히 해나갈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의 뜻 깊은 추향대제를 맞아 종친 모두가 우리의 시조 어르신을 비롯한 조상님들께 애뜻한 송조정신으로 감사와 추모의 정을 전합니다.

모든 종친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다시 한 번 그동안 저에게 베풀어주신 종친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종친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2014년 10월 3일

명광길 신임회장 인사말씀

20대 명씨대종회 회장 명 광 길



친애하는 종친 여러분!

저는 지난 10월 3일, 파주대하파안기념관에서 열린 제36차 명씨대종회 정기총회에서 20대 회장으로 새로 선출된 23세손 명광길입니다.

우선, 부족한 저를 영예로운 대종회장으로 뽑아주신 여러 종친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그러나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 우리 명씨대종회의 중단 없는 발전과 도약을 이루어 내야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이 시기에 대종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척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건대, 우리 명씨대종회는 그동안 역대 여러 전임 회장님들과 종친 여러분의 참여와 노력으로 크게 발전해왔습니다.

특히 전임 명위진 회장님께서서는 오래된 파주 제각을 허물고 다목적건물인 대하파안기념관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역사적인 일을 해주셨습니다. 대하파안기념관은 우리 대종회가 더욱 더 역동적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는 터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처럼 종친을 위한 일이라면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일해 오신 전임회장님께서 대종회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굵직한 일들을 이미 시작해놓으셨고, 대부분을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저는 그 취지와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 그 하나하나가 종친을 위한 의미 있는 결실로 맺어져 환히 빛나도록 할 생각입니다.

우리 대종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표는 명확합니다.

대종회는 종친들의 마음을 모으는 곳, 화목한 관계를 맺는 곳,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곳이어야 합니다. 종친의 발전과 성공을 함께 즐거워하고, 어려움과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나이가 우리 대종회가 조상 숭모는 물론, 우리 후손들이 가문에 대한 긍지와 자랑스런 역사를 인식케 하는 곳,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이 미래를 꿈꾸고 준비하는 곳으로 만들어 나아가야 합니다.

미력하나마 제가 대종회를 그런 곳으로 만들기 위해 종친 여러분의 마음과 지혜를 모으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아낌없는 격려와 응원으로 종친 서로가 발전하고 가문을 빛낼 수 있도록 대종회에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동참하여 주십시오.

종친 여러분의 관심이 있어야 우리 대종회가 더욱 빠르게 쑥쑥 커나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27,000여 전국의 종친이 있습니다.

종친의 단결로 우리를 발전시켜나갈 수 있습니다. 화목하고 굳게 뭉친 단결만이 우리를 키워나가는 유일하고도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저를 중심으로 힘껏 뭉쳐 주십시오.

종친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에 처한 백성을 위해 어지러운 세상을 떨치고 일어나 중국 대륙의 통일을 꿈꾸셨던 대하국 명옥진 시조 황제의 높은 기상과 따뜻한 마음씨를 이어 받은 자랑스런 황손들입니다.

우리 종친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나라와 겨레,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고, 발전시켜나갑시다. 언젠가는 시조 황제의 그 큰 꿈과 높은 뜻을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뚝뚝 뭉쳐 앞으로 나아갑시다!

저 역시 항상 종친 여러분의 곁에서 우리 종친들이 화목한 가운데 대종회가 나날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추귀홍(邱國洪) 중국대사 일행 파주 경모사 방문

지난 9월 27일(일) 오전 11시 추귀홍 주한 중국대사 부부 일행 6명이 파주에 있는 우리 명씨사당 경모사를 방문했다.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이른 11시, 명위진 회장을 비롯한 명광길 부회장, 그리고 10여명의 우리 대종회 임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도착한 추대사 부부는 환한 얼굴로 대종회 임원들과 반갑게 악수를 한 후 명위진 회장의 안내를 받아 명옥진 시조 황제 동상 앞으로 가서 우리 명씨 대학생 딸들이 전하는 예쁜 환영 꽃다발을 받아들고 감사의 뜻을 표하고, 동상을 향해 잠시 절을 한 후 참석자 전원이 함께 기념 촬영을 했다.

이어서 명위진 대종회장님의 안내로 사당으로 간 추대사 일행은 명옥진 황제 영정 앞에 다소곳이 무릎을 꿇고 향불을 피워 두 손에 모아두고 황제님께 4배의 절을 올렸다. 우리 시조 할아버지의 나라, 중국 대사가 중국의 옛 대하

국 황제에게 큰 절을 올리는 매우 감격적이고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추대사 일행은 대하파안기념관 2층에 새로 마련된 전시관에서 명옥진 황제의 탄생과 활동, 그리고 한반도에 옮겨 온 이후의 명씨 역사와 활동상을 관심 있게 둘러본 후 방명록에 싸인을 남겼다. 추대사 일행은 사무국에서 차를 마시며 명씨 역사와 경모사를 화제로 환담한 후 기념식수 행사를 가졌는데, 기념식수인 주목은 명노석 감사, 그리고 기념표지석은 명응식 고문이 기부하였다.

행사 후 추대사 일행은 우리 대종회 참석자들과 함께 인근 음식점에서 장어구이와 참계탕으로 오찬을 했다. 명씨대종회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명씨대종회의 민간외교였고, 대종회의 자랑스러운 행사였다.

〈대중보 편집국〉



명씨대종회 명위진 회장 일행 추귀홍 주한 중국대사 초청 만찬 참석

지난 8월 20일 오후 6시 30분, 우리 대종회 명위진 회장 및 임원 일행은 추귀홍 주한 중국대사가 초청한 명동대사관 만찬에 참석하였다.

우리 대종회는 그동안 명위진 회장의 주선으로 벌써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중국대사관 및 중국대사와의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었는데, 이번 만찬은 전임 장썬선 주한 중국대사 이임 후, 지난 해 말 새로 부임해온 추귀홍 주한 중국대사의 초청으로 이루어졌다.

추대사는 명동대사관 신축 후 처음으로 주한 중국대사로 임명되었는데, 우리 명위진 대종회장은 명동대사관 신축과 추귀홍 대사 부임을 축하하고, 우리 명씨와 중국과의 돈독한 우의를 다지고 긴밀한 관계를 계속해나가는 뜻으로 이번 만찬에 참석하며 순금 10냥으로 된 기념패를

사비를 들여 만들어 전달하였다.

이날 만찬에 참석한 우리 측 일행은 명위진 회장, 명노승 명예회장, 명광길 수석부회장, 명호근 부회장, 명태식 상임이사, 명광주 상임이사, 명영식 상임이사, 명순식 사무국장, 대법원 방이엽 판사부부 등이었고, 중국 측은 추귀홍 대사 부부, 학효비 부대사, 진소춘 참사관, 왕옥민 정부부과장, 등명부 서기관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추대사는 명위진 회장에게 명씨시조 대하국 명옥진 황제를 모시고 있는 파주사당을 방문하고 싶다는 뜻을 전달하는 것과 함께 우리 측 일행들에게 9월 23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중화인민공화국 건립 65주년 행사에 참석해줄 것을 요청하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만찬을 마쳤다.

〈대중보 편집국〉



명씨대종회 제36차 정기총회 개최, 대하파안기념관 명씨역사전시관 개관식, 추향대제

2014년 10월 3일(토) 오전 11시, 명씨대종회 파주사당 경모사(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두포리 50-1)에서는 전국의 종친 약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6차 정기총회, 대하파안기념관 전시관 개관식, 추향대제를 올리는 행사가 연이어 열렸다.

행사장은 명노승 명예회장, 명성회 명을식 회장, 명륜회 명봉식 회장, 이석화 청양군수가 보내온 축하 화환으로 분위기가 환했다.

이번 정기총회는 지난 5월 5일이 황금연휴였던 까닭에 10월 3일 시제와 함께 열기로 결정, 이날 개최되었다.

청명한 가을, 이른 시각부터 참석하기 시작한 250여 전국의 종친들은 시종일관 만면에 웃음을 띤 얼굴로 만나는 종친들마다 반갑게 인사하며 속속 행사장 좌석에 착석, 행사를 시작하기 전까지 여기저기 이야기 꽃을 피웠다.

정기총회 주요 의결사항은 명위진 대종회장의 후임으로 명광길 수석 부회장을 20대 명씨

대종회 회장으로 선출하였으며, 명노석 이사를 새 감사로 선출하였다.

이어 열린 대하파안기념관 2층 명씨역사전시관 개관식은 오색테이프를 커팅하면서 시작되었는데, 테이프커팅과 함께 전시관을 구경하는 종친들로 전시관 내부가 붐볐다.

전시관 개관식에 이은 추향대제는 초헌관을 명위진 대종회장, 아헌관을 자헌공 창원종친회 명홍조 회장, 종헌관을 부사공 명영철 이사와 시랑공 명영수 이사로 하고, 집사를 대종회 명태식 상임이사와 명제만 이사, 축관을 명을식 고문으로 하여 대하장학회 사무총장 겸 대종보 편집국장 명광주 상임이사가 제례 진행을 맡아 올렸다.

행사를 마친 후 종친들은 시루떡과 인절미를 곁들인 출장부폐식 육개장으로 중식을 하며 이러저런 이야기와 함께 즐거운 만남을 이어갔다.





우리 종친 일행 중국 호북성 수주시 소재 시조 명옥진 황제 탄생지기념관 방문



명 순 식 명씨대중회 사무국장

우리 명씨대중회는 지난 9월 17일 수요일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9월 21일 월요일에 돌아 오는 4박 5일 일정의 시조황제 탄생지기념관 방문행사를 가졌다.

2014년 올해는 중국 호북성 수주시 수현 매구에 위치해 있는 시조황제의 탄생지기념관이 2012년 2월 29일 새로 단장하여 개관한지 벌써 2년이 되는 해이다.

우리 명씨대중회는 지난 해까지 매년 시조황제의 룡인 예릉중경에서 올리는 시제를 마치고, 호북성 수주시의 탄생지기념관을 함께 방문하는 행사를 가져왔다. 그러나 많은 종친들이 두 곳을 한꺼번에 다녀오는 일정은 직장 생활을 하는 종친의 경우에 지장이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올해는 봄에는 예릉, 가을에는 탄생지기념관을 방문하기로 결정하였다. 분리 방문의 경우 시간절약과 경비절감 등의 효과도 있고, 보다 많은 지역을 관광할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올해는 분리 시행하기로 결정했는데, 참가 종친을 2차례나 모아야 하는 어려움도 없지 않았지만, 돌이켜보니 진행을 맡은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 덕분에 많은 종친들과 소통할 수 있었던 계기도 되었던 것 같다. 방문기록을 일자별로 정리해본다.

이틀째인 9월 18일은 기념관을 방문하는 날, 수주시는 비가 많은 지역이어서 지난해처럼 비가 내렸지만 종친들 대부분이 탄생지기념관에 새로 오신 분들이라서 이른 아침부터 기쁜 마음으로 발걸음을 서둘렀다.

종친들은 시조황제의 영정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둘러서서 향을 피우고 4배의 예를 올린 뒤 탄생지기념관 이곳저곳을 둘러보았다.

1329년 9월 9일(음), 이곳 수주시 수현에서 평민으로 태어나서서 원나라 말기의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던 백성을 구하기 위해 큰 뜻을 품고 홀연히 떨쳐 일어나서 난세를 평정하고 1361년 왕이 되었고, 1363년 대하국을 세워 황제의 자리에 오르셨던 우리 시조 할아버

지의 발자취를 차근차근 돌아보았다.

탄생지기념관 방문을 마치고 나온 우리 종친 일행은 뿌듯해 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기념관 안팎으로 가득히 꾸며진 시조할아버지의 역사와 2세조 승할아버지가 한국에서 생활 하시던 당시의 모습까지를 재현해 놓은 탄생지기념관을 보고 조상에 대한 긍지를 느꼈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기념관 방문을 마치고 점심식사를 한 후, 우리는 해발 1055미터의 수주시 대홍산을 올랐다. 비교적 낮은 산이었는데, 중국정부가 대규모 관광지로 개발하고 있었다. 그러나 안개가 자욱해서 절경을 감상할 수 없어서 아쉬움이 컸다.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어마어마하게 크고 웅장한 규모의 자은사를 돌아보고는 벌어진 입을 닫을 수 없었다. 천년 묵은 은행나무를 비롯 모든 것들이 경탄할 정도였기 때문이다. 독실한 불교신도인 명호근 부회장님은 가는 곳 불전함마다 거액의 시주를 하면서 정성스럽게 절을 올려서 매우 인상적이었다.

사흘째인 9월 19일은 당양에 있는 수나라 시대에 지어진 옥천사를 가는 것으로 일정을 시작했다. 보정선사라는 스님이 삼국지의 주인공인 관운장의 혼령을 모시고 있는 절이었는데, 쉽게 접하기 어려운 관광지였다. 우리를 안내하던 가이드의 말로는 우리나라 동대문 가까이 있는 동묘가 관운의 영정을 모시는 사당이라고 해서 흥미를 더했다.

이어서 바람 부는 날이면 바다의 물결을 빼어 닮는다는 대나무의 물결이 있는 의창지역 삼협 죽해를 구경했는데, 100여종의 많은 종류의 대나무가 장관이었다. 삼림욕을 하기도 안성마춤의 트레킹코스의 계곡이었으나 시간이 많지 않아 여유 있게 즐기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의창 서릉협을 가는 중 빅토리아 유람선에서 먹은 저녁식사는 육상의 어떤 호텔보다도



음식이 더 훌륭했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후식으로 나올 법한 과일이 없었다는 것이 특이했다.

나흘째 날인 9월 20일은 서쪽 호북성 지귀현에서 동쪽 의창 남진관까지 연결되는 장강 삼협 중에서 가장 웅장하다는 총 76킬로미터의 긴 협곡인 서릉협을 유람선을 타고 관광했다. 서릉협 안에는 병서보검협, 우간마패협, 공령협, 등영협 등 절경의 극치를 보여주는 협곡이 있었다.

유람선에서 내려 돌아본 구완계곡은 특별하지는 않았으나, 특이한 보석들을 공짜로 주면서 사람들을 돌가공 작품에 폭 빠져들도록 만들어서 우리 몇몇 종친들도 잠시 선물을 마련하는 시간을 가졌다.

무한에서 마지막 날을 보냈던 비엔나호텔은 서울의 5성급 호텔에 손색이 없을 정도로 훌륭했다. 저녁에 중국에 있는 명씨역사연구회 측의 초청으로 저녁을 대접받은 우리로서는 우리 명씨에 대한 중국 명씨들의 깊은 애정과 명씨역사 연구에 대한 열정에 몹시 부끄러

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4박 5일 일정의 마지막 날인 9월 21일, 우리 일행은 의창에서 무한비행장까지 네 시간동안 버스를 타고 이동해서 한국을 향했다. 길지 않은 일정이지만 알차고 즐겁게 지낸 우리 방문단 일행은 공식일정을 마쳐야 했다. 몇몇 종친들은 아쉬움을 달래기라도 하는 듯 공항 입국장을 들어가기 전 남은 술을 나눠 마시고 비행기에 올랐다.

나는 비행기 속에서 잠시 이번 방문을 돌아보며, 중경의 예룽추모제를 위한 방문과 수주의 탄생지기념관 방문을 같이 할 것인지, 아니면 분리할 것인지에 대해 잠깐잠깐 생각을 했으나 싶었는데, 어느덧 인천공항에 도착했다는 안내방송이 들렸다. 떠날 때 만났던 것처럼 우리 일행은 공항에 다시 모여서 아쉬운 석별의 인사를 나누고 4박 5일의 전 일정을 마무리했다.



우리 명씨 족보를 살피며 청양의 역할을 생각한다

청양지방종친회 총무 명광민



지난해 필자는 청양에서 타임캡슐 수장자료를 모으면서 우리 명씨족보와 함께 청양을 돌아볼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임진보(1812) 발간 이후 80년 만에 청양의 18세손 麟祥 할아버지의 주관으로 편집 발행된 족보가 임진보(1892)이다. 필자는 바로 이 임진보를 발간하기 위해 당시에 동원했던 갖가지 통신수단과 활동, 그리고 편집교정에 대한 단면을 파악할 수 있는 많은 양과 종류의 문건을 확보하였다(현재 이 자료는 필자의 형(光周)이 영구보존자료화 하기 위해 사비를 들여 복원작업에 착수, 작업 종료 후 대종보에 소개 예정).

임진보의 序에는 麟祥 할아버지의 둘째 아들인 19세손 義璜이 戊子年(1888) 봄에 서간을 작성하여 통문을 보내 修譜에 필요한 자료와 비용을 모아 5년 만인 壬辰年(1892)에 간행할 수 있었음을 기술하고 있다. 또한 義璜이 쓴 임진보의 序에는 명씨의 鼻祖 大夏皇帝 諱 玉珍이 隨州에서 탄생하여~ 라고 적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鼻祖라는 용어를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

*비조(鼻祖): 시조 이전 선조에서의 초대조(初代祖)를 지칭하나, 선계가 없을 경우 선조를 존중 표현하기 위하여 쓰기도 함. 포유류(哺乳類)가 배태할 때 코부터 생긴데서 유래됨.

序文에는 또한 義璜의 六世祖 諱以禮 할아버지가 앞서 족보를 修譜할 때 주관하였다고 기술하고 있어 확인해본 결과 강화40년(1701) 9월에 발간된 신사보에 明以禮, 明以教 등의 청양 할아버지들이 관계하셨음을 알 수 있었다. 그 뒤에 발간된 병신보(1776)의 校子 兼監印, 임진보(1812)의 監印有司 업무를 관장하신 분들도 청양 할아버지들이었다.

을축보(1925)는 麟祥 할아버지의 아들인 19세손 義璜 할아버지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그의 아들인 20세손 堯鎭이 호남의 乙基, 개성의 道煌, 서울의 惠淳 등과 함께 마무리하였다(堯鎭은 필자 光敏의 증조부이며, 증경 대종회장 渭鎭의 8촌 형님이시다). 義璜 할아버지는 당신이 시작한 을축보 발간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병석 눕게 되자 아들인 堯鎭과 族姪인 宇鎭으로 하여금 주선하게 하였다고 乙丑譜跋에 회고하고 있다.

또 다른 乙丑譜跋을 기술한 義喆 할아버지는 정유보(1957)를 주관하고, 청양 입향조와 이후 조상 제위 산소의 비문을 쓰셨다. 정유보발에는 분단이후 반쪽만의 족보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탄식하며 고증자료의 부족과 선배 경험자들이 세상에 계시지 않음을 안타까워했다.

요약하면 우리 선조들께서는 그분들의 집을 족보발간을 주관하는 청으로 하여 때로는 아버지와 아들이 대를 물려가며 혼연일체가 되어 족보발간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족보 발간에 필요한 자료를 모으는 방법을 연구하여 각 지방의 자료가 누락 없이 수집되도록 하였고, 족보 발간비용을 자료제출과 함께 약정토록 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등 매우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 적용하고 발전시켜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세대를 달리하는 후학들을 같이 참여시켜 족보 발간에 필요한 제반 절차와 원칙, 그리고 그 궤를 동일선상에서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토대위에서 족보발간을 추진했다는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원시적인 통신수단을 이용했던 시절, 족보발간의 어려움은 과연 어느 정도였을까? 정유보를 제외하고 우리 명씨족보는 대략 4~5년이라는 긴 시간을 들여가며 족보발간 청에서 경향각지로 사발통문을 띄우고 족보발간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등 산모의 고통과도 같은 극한의 어려움을 감수해냈어야 했다. 자신의 평생 헌신을 넘어 자식에게까지 그 사명감, 책임감을 연계했던 것이다. 지고의 정성과 사명감이 없으면 해낼 수 없었다.

여기에서 잠시 임진보(1892), 을축보(1925) 간행을 주도하였고 신사보(1701) 발간 시 청양지역을 주관하셨던 필자의 선조들이 사셨던 집에 전해 내려오던 명씨족보와 관련한 이야기를 소개할까 한다. 이야기인 즉, 그 족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으면 그 족보를 두고 “이 집에 있는 족보는 이 집의 문지방을 넘을 수 없다”는 선조들의 말씀을 아주 오래 전부터 구전해왔다는 사실이다. 이로 미루어 문지방을 넘지 못할 족보는 아마도 신사보를 발행하기 이전에 존재했던 “필사본 명씨족보”가 아닐까하는 조심스런 추측을 하게 한다. 혹은 우리 명씨에게 아주 중요한 가첩(家牒), 보첩(譜牒)형태의 필사본 족보이지 않았을까. 癸未譜(2003) 주관자인 海丞 종친도 필자의 형에게 이 족보의 열람과 복사가를 타진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그 귀중한 족보가 행방이 묘연해졌으니 통탄할 일이다. 우리의 과거를 제대로 지키지도 못했다는 사실에 죄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

다시 壬辰譜 이야기로 돌아가자. 壬辰譜 序文(義璜 기술부분)에는 后稷으로부터 孟明에 까지 이르러 明으로써 姓氏를 삼았다고 기술하고 있으며, 梁, 唐, 宋에서 활동한 선조들의

실명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이 우리의 역사와 옛 족보들에 대한 정확한 독해와 재해석이 필요하고, 정교하고 입체적으로 연구되어야 하는 이유다.

*후직(后稷): 주왕조(周王朝)의 전설적 시조. 농경신(農耕神)으로, 오곡(五穀)의 신이기도 하다. 성(姓)은 희(姬)씨고, 이름은 기(棄)다. 『사기(史記)』 周本記(周本記)에 따르면 유태씨(有部氏)의 딸로 제곡(帝?)의 아내가 된 강원(姜原)이 거인의 발자국을 밟고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감생설화(感生說話))고 한다. 그것이 불길하다 하여 세 차례나 내다버렸지만 그때마다 구조되었다(기자설화(棄子說話))고 한다. 나중에 요제(堯帝)의 농관(農官)이 되고 태(邵, 陝西省武功縣 부근)에 책봉되어 후직이 되었다.

*맹명(孟明): 진(秦)의 명장. 호함(函)에서 진(晉)의 습격을 받아 포로가 된 후 석방되어, 3년 만에 하수(河水)를 건너 진(晉)을 쳐서 보복했다.

신사보를 주관했던 정구 할아버지는 신사보 서문에서 우리 명씨가 대하황제(諱 玉珍)에서 발원한 것으로 적으면서 그 이전의 옛 족보도 우리에게 있었으려면 병란의 와중에 없어진 것으로 추정되어 그 이상의 것을 고증할 수 없음을 안타까워하였다.

또 하나, 우리 명씨족보의 역사와 관련하여 임진보 서문에는 義璜이 강화40년(1701) 9월에 발간된 신사보에 明以禮, 明以教 등 자신의 6대조 청양 할아버지들이 관계하였음을 기술하고 있는데 이를 修譜라고 언급하고 있음을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여러 족보에서 신사보(1701)가 우리 명씨 최초의 족보라고 의견을 모으고 있지만, 대하황제 諱 玉珍을 명씨의 鼻祖로 칭하고 있는 사실을 생각하면 실제로 후직으로부터 맹명에 이르기까지 명씨의 역사를 적어 놓은 가첩형태의 족보가 존재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梁, 唐, 宋에서 활동한 명씨 선조들의 실명이 현재의 중국 역사에서 확인된다면 우리 명씨의 역사는 진왕조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

분명한 것은 명씨 역사를 정확히 연구하여 밝히고, 잘 지켜나가는 일에 대한 오늘의 우리 역할이 중요하고 몫 또한 크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오늘의 청양은 매우 어렵다. 한 때 700여 세대가 넘던 명씨 가구 수는 고작 350여 세대로 줄었고, 씨족의 역사를 고증할 문건들은 이미 분실되거나 해서 없어진 까닭에 흔적을 찾을 수 없으며, 한학을 완전히 수학한 이 역시 없다.

최근까지 필자는 우리 명씨 역사의 작은 자취라도 찾기 위해 임진보, 을축보 주관자 고택과 정유보 주관자의 고택을 살살이 뒤졌고, 그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는 후손들과 어르신들을 만나 왔다. 그러나 일련의 채록 과정에서 느낀 것은 우리의 과거들이 벌써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거나 사라지고 있는 중임을 확인하고는 탄식을 금할 수 없었다.

우리 명씨족보의 산실이자 요람이었던 청양

군 북상면 청계리 1통 1호 집(운곡면 효계리 608번지, 운곡면 청계동길 53-4)은 남북통일이 되면 영변이나 개성에 거주하는 명씨 후손들이 옛 문헌을 들고 찾아올 것이 분명한데, 명씨땃줄의 흐름을 족보로 기록했던 그 역사적인 전통 자산이 제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 한반도 명씨 역사의 중요한 한 축인 청양의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 명씨의 역사를 찾고 바로 세우는 데에 명씨대종회와 더불어 청양지방종친회가 앞장서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된다.



청양참여 및 관계자 중심 족보 발간내역

회차	권수	발간 연대	발행 부수	청양참여자	관계후손	주무자	비고
1	1	신사 1701	31	以禮, 以教	宋植, 乙植 (盧恒)	廷壽	영변
2	2	병신 1776	53	允譜	在勳	萬秋, 建行	영변
3	3	임진 1812	62	彦秀	大植	玆	창원
4	7	임진 1892	64	麟祥, 義璜	光周, 炳允	麟祥	청양
5	11	을축 1925	66	義璜, 堯鎭	光周, 光河	道煌, 堯鎭	청양
6	6	정유 1957	172	義喆, 盧乙	濟榮, 在哲	義喆	청양

*최근 족보는 생략.

명광길 대종회장, 명씨대중회를 이끌어갈 임원진 구성

제20대 명씨대중회 신임 명광길 회장은 지난 10월 17일 임원회의를 열고 회칙 제1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임원 인사를 단행하였다.

- 회장: 명광길
- 부회장(5명): 명동성, 명호근
신임 부회장: 명태식, 명순식, 명광주
- 감사(2명): 명인식
신임 감사: 명노석
- 상임이사(10명): 명영식, 명순구
신임 상임이사: 명화진(명진산업 대표), 명대식(건축업 대표), 명창근(명진수산 대표), 명경식(KMT 대표), 명지성(세광종합기술 이사), 명재문(신강전기 대표), 명재택(동양가설계 대표), 명영준(태흥기전 대표)
- 사무국장: 명순식(부회장 겸임)
- 명위진 전 회장을 명예회장으로, 명노문 전 부회장과 명노준 전 사무국장을 고문으로 추대하였으며, 이사는 인원이 많은 관계로 추후 확정기로 함.
(대중회 사무국)



파주사당 입구 표지석, 대하파안기념관 정문 입구 현판 등 새로운 안내사인 설치로 더욱 깔끔해진 대하파안기념관

명씨대중회 파주사당입구 유도사인(입구표지석)과 대하파안기념관의 사인(간판)이 새롭게 단장을 마쳤다.

파주사당입구 유도사인은 자동차와 충돌이 잦아 오래 전에 파손된 것을 이번에 보령 명응식 종친의 기부로 교체하였다. 또한 대하파안기념관 정문 좌우의 명씨대중회와 대하장학회 현판은 대하파안기념관 준공과 동시에 설치될 예정이었으나, 정문 설치가 마무리 되지 않아서 설치가 미루어져 왔다. 그러나 올해 추향대제를 앞두고 정문설치공사를 마무리하면서 현판도 함께 설치완료하였다.

이와 함께 대하파안기념관 건물 각 층 입구 4곳도 투명으로 된 처마를 설치하였다.

(대중보 편집국)



2014년 지방종친회 시제일정 안내

명씨대중회 각 지방종친회 시제일정을 안내해드립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종친들께서는 대중회 사무국장에게 연락바랍니다.

1. 창원: 11월 23일(일요일)
2. 태안: 11월 23일(일요일)
3. 청양: 11월 24일(월요일)
4. 서천: 11월 30일(일요일)
5. 금산: 11월 30일(일요일)
6. 고흥(덕흥리): 12월 5일(금요일)
7. 고흥(신금리): 12월 6일(토요일)

<지방종친회 시제 참여문의: 명순식 사무국장 010-2008-8151>



대하파안기념관 전시관에 오셔서 시조 황제의 나라 대하국 국새, 시조 황제의 정복 곤룡포 용문양, 그리고 현궁지비를 도장으로 찍어 기념으로 남기세요

이번에 새로 오픈한 대하파안기념관 2층 전시관은 우리 명씨의 역사를 전시하는 곳입니다.

종친들께서는 꼭 한 번씩 오셔서 명씨의 역사를 둘러보고, 전시관 한 편에 준비해놓은 3가지 모양의 대하국 국권의 상징인 국새, 황제께서 입으셨던 곤룡포의 황제 상징 용문양, 그리고 시조황제의 역사를 비석으로 만들어 남긴 현궁지비를 도장으로 찍어가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우리 명씨가 황손임을 알리고, 긍지감을 더해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밀착 취재]

수원지방중친회 '서명회' 성공 비결

대중보 편집국장인 나는 지난 7월 25일, 20여년 역사를 자랑하는 '서명회' 모임이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서둘러 서울을 출발, 1시간 전에 모임이 열릴 장소에 도착했다. 이날 모임에 참석한 인원만 30여명. 대부분의 회원이 모임 시간을 잘 지켜 도착했지만, 2시간이나 늦게 도착한 이가 있어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이야기를 들어 보니, 야근 때문에 약속시간을 지킬 수는 없었지만 모임에 잠시라도 들르기 위해 왔다고 했다.

서명회 명한식 회장은 모임이 성공한 것은 특별한 비결

이 있어서가 아니라 "매월 모임을 부부동반으로 하는 것 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가족까지도 모임의 구성원이니 더 이상 들을 것이 없었다.

오리구이와 삼겹살을 먹으며 몇 차례 술잔이 오가는 듯 싶었는데, "지방중친회가 살아야 대중회가 커지지..."라고 명영식 총무(대중회 상임이사, 산악회 회장)가 말을 던지자, "중친은 이해관계를 따지지 말고, 자주 만나는 것 밖에 없어..."라고 명화진 고문(대중회 상임이사)이 진한 충

청도 말투로 말을 이었다. 그러자 맞은편에서 "중친끼리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오해할 일 없어, 이해하면 되지..."라고 말하고 허허 웃으며 술잔을 내밀자 다섯 개의 잔이 경쾌하게 부딪힌다.

약 2시간 30분, 나는 서명회 성공의 모두를 들여다 볼 수 있었다. 서명회의 따뜻한 믿음이 더 많은 중친들에게 퍼져나가기를 기원한다.

(대중보 편집국장 명광주)



명순구 교수의 시사법률①

도와주려면 실수 없이 제대로 도와줘야 한다

대중회 상임이사/고려대 법대교수, 교무처장 명 순 구



남을 도와주다가 피해를 입혀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가? 2014년 10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최씨 등 두 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사판결 이전 민사판결은 최씨 등 두 명에 대하여 박씨에게 1억 1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선고했다.

사건의 내용은 이러하다. 최씨와 박씨 등은 다른 직장 동료와 함께 저녁 회식을 하였고 그 자리에서 여직원 박씨가 만취상태가 되었다. 최씨는 도와주려는 마음으로 다른 동료와 함께 박씨를 업고 집에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그녀를 두 차례 떨어뜨렸다. 동료 중 한 명이 박씨의 집을 찾는 동안 나머지 동료는 박씨를 계단에 앉히고 방치해 계단 난간 벽에 왼쪽 머리를 부딪쳤으며, 박씨를 업고 가다 넘어져 박씨의 머리와 얼굴 부분을 부딪치게 했다. 이 사고로 박씨의 얼굴과 머리 등이 아스팔트에 부딪혀 뇌출혈이 발생했고, 오른쪽 청력까지 상실해 평생 보청기를 착용하게 됐다. 박씨는 신체상해를 이유로 최씨 등을 상대로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형사적으로는 최씨 등을 중과실치상으로 고소하기에 이른 것이다.

대부분의 근대국가가 그러하듯 우리나라도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은 독립되어 서로 별개이다. 그러므로 민사판결을 받고 그에 따라 이행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형

사책임을 면하는 것도 아니고, 그 반대로 형사책임을 완료했다 하여 민사책임을 면하는 것도 아니다. 이 사건에서 박씨가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을 받았지만 이와 별도로 형사소송이 진행된 것은 그러한 이유이다.

최씨 등이 호의로 박씨를 도와주려다 발생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최씨 등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우선, 민사책임을 살펴본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배상을 하라고 규정한다. 박씨는 이 조문을 들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더라도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호의로 타인을 도와주려다 손해를 끼친 때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문제되지 않는가? 그렇지 않다. 호의로 시작한 일이라도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면 배상책임이 있다는 것이 법원칙이다. 가령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할머니를 돕기 위해 짐을 대신 들었다면 "실수없이" (즉 과실없이) 그 일을 수행해야 한다. 물론 돈을 받고 남의 일을 해주다가 피해를 입힌 경우와 호의로 일하다가 그런 일이 생긴 경우 사이에 차이가 없지는 않다. 후자의 경우에는 호의라는 점을 감안하여 배상액을 감경해 주는 경우가 있다. 위 사안에 관한 민사재판에서도 "이번 사고는

피해자가 만취한 탓에 벌어진 일로, 남자 직원들은 자신의 시간과 비용을 들여 그를 데려다주는 일에 나섰다"며 직장 동료로서 호의를 베풀ن 점을 참작해 그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다음으로, 형사책임을 본다. 재판부는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세 번이나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상처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피해자를 가족에게 데려다 주면서 피해자의 상처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들어, "중대한 주의의무 위반" (즉 중과실)이 있었다고 판단에 따라 형법 제268조가 정하는 중과실치상죄를 적용하여 최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정도 피해에 대하여 300만원의 벌금을 선고한 것은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호의로 시작했다가 발생한 사고이고 손해배상소송에서 배상액을 지급한 점이 고려된 결과일 것이다.

호의로 남을 도와주기 시작했다면 끝까지 실수 없이 제대로 도와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다.



명승권 교수의 의학상식 ①

건강기능식품 먹지마라

국립암센터 가정의학과 전문의, 의학박사 명 승 권

많은 사람들이 홍삼, 비타민, 오메가-3, 유산균, 글루코사민, 칼슘제 같은 각종 건강기능식품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려고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그 이름에서 풍기듯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 약이 아닌 식품이라 부작용도 없을 것 같기도 하면서 알약이나 캡슐 등으로 되어 있어 간편하게 복용할 수 있으니 끌리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과연 건강기능식품은 그 이름대로 의학적으로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가 있을까? 결론을 미리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현재까지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비타민이나 항산화제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골고루 먹으면 암이나 심혈관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그래서 수 십년 전부터 과일과 채소 등으로부터 천연 비타민, 항산화물질 등을 추출하거나 이들 영양물질과 화학적 구조가 같도록 합성해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바로 건강기능식품이다. 하지만 이러한 건강기능식품이 실제로 건강에 도움이 되고 안전한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실험실 연구나 동물실험 뿐 만 아니라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을 통해서 입증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 정식으로 인정받아 유통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은 거의 대부분 그 효능에 대한 임상적인 근거가 부족하며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의부터 시작해 그 내용 자체가 비과학적이고 비의학적이며 근거가 부족하다. 식약처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고 확실히 구분하면서도, 기능유지와 생리기능 활성화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질병 예방이나 치료 없이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할 수 있다는 말인가? 즉,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한다는 것은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한다는 것과 별개의 문제로 구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등급이다. 근거자료의 정도에 따라 질병발생 위험 감소기능, 생리활성기능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가장 기능성이 높은 '질병발생 위험감소기능'에 해당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칼슘과 비타민, 자일리톨 등 총 3종이 있다. 이 보다 아래 단계인 생리활성기능 1등급은 총 7종이 있으며 나머지 대부분에 해당하는 220여종은 생리활성 기능 2등급과 3등급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특히 3등급은 인체적용시험이 미흡, 즉 임상시험을 통한 근거가 빈약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기능성 등급이 가장 높은 '질병발생 위험감소기능'에 해당하는 기능성 원료조차 아직까지 그 기능성이 임상적으로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으며, 나머지 1, 2, 3등급의 경우에도 대부분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임상적 근거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건강기능식품 생산액의 50%를 넘는 홍삼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이 부족하며, 2위인 비타민제나 항산화보충제는 많은 임상시험을 종합한 결과 오히려 사망률을 높이거나 폐암, 방광암 발생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으며 감기예방이나 피로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 역시 없다. 이외에도 오메가-3 지방산, 글루코사민, 칼슘제 등 역시 근거가 부족하다.

건강을 위해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해 먹기 보다는 천연 비타민이나 항산화제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골고루 먹는 것이 좋다. 아울러 정부와 식약처는 현재의 건강기능식품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근거가 확립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의 판매와 유통을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

●국립암센터 가정의학과 명승권 교수는 서울대 의대 석·박사(가정의학)를 졸업하고,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이사, 국립암센터 암정보교육과 과장,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 방문학자를 지냈으며, 2013년 대한가정의학회 학술상을 수상하였다. 지금까지 KBS 특목한 소비자 리포트와 풀하우스, MBC기분 좋은 날과 불만 제로 UP, SBS PLUS 메디컬 X, MBN 황금알, JTBC 농장특강 미라클 푸드, 채널A 닥터지바고와 웰컴투 시월드 그리고 웰컴투 돈월드, 뉴스Y 이슈토크 전 24, 팩트9 뉴스 등 수많은 프로그램에 출연, 잘못된 의학상식이나 의술을 가차 없이 지적하고 비판해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시청자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 그가 이번 명씨대중보 제7호를 시작으로 우리 종친들을 위해 그의 의학상식과 지식을 연재해주기로 약속했다(대중보 편집인 명광주).



대하파안기념관 전시관 조성비 찬조내역



지난 10월 3일, 개관한 대하파안기념관 전시관(명씨역사관)조성 성금을 찬조해주신 대중회 임원과 종친의 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명위진 회장: 500만원
명동성 부회장: 300만원
명호근 부회장: 200만원
명광길 부회장: 200만원
명태식 상임이사: 200만원
명영식 상임이사: 200만원
명광주 상임이사: 200만원
명화진 이사: 200만원
명순식 사무국장: 200만원
명환철 이사: 10만원
명순구 상임이사: 200만원
명인식 감사: 200만원
합 계: 2,610만원



고흥출신 명창환 종친, 순천시 부시장 취임

지난 8월 1일, 고흥출신 명창환 종친(22세순)이 순천 부시장에 취임했다. 전남대 행정학과 출신으로 여수시 기획담당관, 전라남도 관광정책과장, 식품유통과장, 안전행정국장을 역임했다.



안산시청 명지혜 종친, 전국실업 유도대회 우승!

지난 8월 12일 2014전국실업유도대회 최강전에서 안산시청 소속 명지혜 종친이 여자 63Kg급에서 우승,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지난해 준우승에 이어 올해 시즌 2관왕의 영광을 차지했다.



청양 명다솔 종친, 안전행정부 9급 직원선발시험 합격

2014년 청양고등학교를 졸업한 명다솔 종친(부 명형식, 조부 명제풍)이 안전행정부 9급 견습직원 선발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소정의 중앙공무원연수원과 견습직원교육을 마치고 공무원으로 근무한다.

시제(총회) 찬조 내역

지난 10월 3일, 시제(총회)에 찬조금을 내주신 종친들의 찬조내역입니다.

명 공	100,000	명순정	200,000	명제일	100,000
명건식	100,000	명순필	100,000	명제준	50,000
명경민	100,000	명승엽	100,000	명제태	1,000,000
명경식	50,000	명승진	100,000	명제풍	50,000
명계복	500,000	명안창	50,000	명제항	100,000
명공식	100,000	명양빈	500,000	명제협	100,000
명광민	100,000	명영국	200,000	명제희	200,000
명광연	100,000	명영준	100,000	명지성	100,000
명근식	300,000	명영철	100,000	명진웅	100,000
명기식	50,000	명완석	100,000	명창근	300,000
명기현	100,000	명용옥	50,000	명치호	50,000
명기홍	50,000	명용표	100,000	명태식	50,000
명노경	100,000	명용환	30,000	명하식	50,000
명노문	500,000	명원호	50,000	명학식	50,000
명노문	100,000	명유식	50,000	명학식	100,000
명노석	200,000	명을식	100,000	명한식	100,000
명노선	50,000	명응식	50,000	명헌상	100,000
명노성	100,000	명의선	100,000	명현호	200,000
명노승	500,000	명인세	200,000	명형남	50,000
명노우	100,000	명일권	50,000	명형철	50,000
명노원	100,000	명임식	100,000	명홍성	50,000
명노을	100,000	명잉수	50,000	명홍성	100,000
명노정	50,000	명장근	200,000	명홍식	100,000
명노철	100,000	명재경	50,000	명환봉	50,000
명노현	100,000	명재균	50,000	명환식	50,000
명노혁	50,000	명재동	100,000	명환주	300,000
명노현	50,000	명재석	50,000	명환철	100,000
명노형	100,000	명재성	50,000	명환철	100,000
명달식	100,000	명재문	300,000	명효식	100,000
명대옥	50,000	명재인	50,000	명효진	200,000
명대훈	100,000	명재철	100,000	명흥복	100,000
명도진	100,000	명제걸	100,000	명희건	50,000
명동민	100,000	명제권	50,000	금산종친회	300,000
명동성	300,000	명제균	100,000	덕흥종친회	100,000
명동진	100,000	명제등	50,000	보령종친회	200,000
명로언	100,000	명제만	100,000	부산종친회	300,000
명상하	100,000	명제문	50,000	서천종친회	300,000
명석병	100,000	명제선	100,000	창원종친회	1,000,000
명성민	100,000	명제승	100,000	청양종친회	300,000
명성옥	50,000	명제운	100,000	태안종친회	500,000
명성호	50,000	명제원	100,000	명호남	100,000
명수만	50,000	명제의	50,000	명영석	300,000
				명재완	100,000
				명진식	100,000

총127명 17,530,000원

기사투고 안내

명씨대중보는 3개월에 1번씩, 연간 4회 발행되는 우리 명씨의 신문입니다. 기사 및 사진투고는 연중무휴 가능하오니, 종친들의 많은 투고 바랍니다.

명씨대중회와
우리 명씨종친들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KMT 대표이사
명 경 식 (22세손)

새로 출범한 명씨대중회와
명씨대중보의
무궁한 발전과 성공을 기원합니다

명진산업 대표 명화진

건축업 대표 명대식

명진수산 대표 명창근

KMT 대표 명경식

세광종합기술 이사 명지성

신강전기 대표 명재문

동양가설재 대표 명재택

태흥기전 대표 명영준

본 면은 광고란입니다.

명씨대중회의 발전과 명씨대중보의 발전을 기원하는
의미로, 또는 종친 여러분이 경영하시는 기업이나 기업
의 상품 등도 자유롭게 광고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계재를 희망하시는 분들에게서는 대중회 사무국으로
문의바랍니다.

명씨대중보 문의 및 구독신청

• 명씨대중보 편집인

명광주 010-4267-3610

이메일: adpromyung@naver.com

• 명씨대중보 편집국장

명순구 010-4007-1847

이메일: skmyoung@korea.ac.kr

• 대중회 사무국장

명순식 010-2008-8151

이메일: nismyung@daum.net